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으로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이사 25,9-10)

신앙인이란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인내로 이 수고의 시간을 견디어 내는 사람입니다.

환난의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수고의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수고의 시간에 우리가 결코 혼자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위로일까요?

홀로 겪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형제들이 있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도 환난과 수고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고 늘 기쁨만 있다 해도 그것은 참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고통 속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지성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온갖 감사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이겨낼 그날이 올 것입니다. 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시길.

우리는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이 기쁨과 이 희망의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하시기를!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필리 4,19)



김정훈 라파엘 신부 | 교포사목(덴버 한인 성당)



제 1 독 서 이사 25,6-10ㄱ
화 답 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 독 서 필리 4,12-14,19-20
복 음 마태 22,1-14 또는 22,1-10

주일 진례



천지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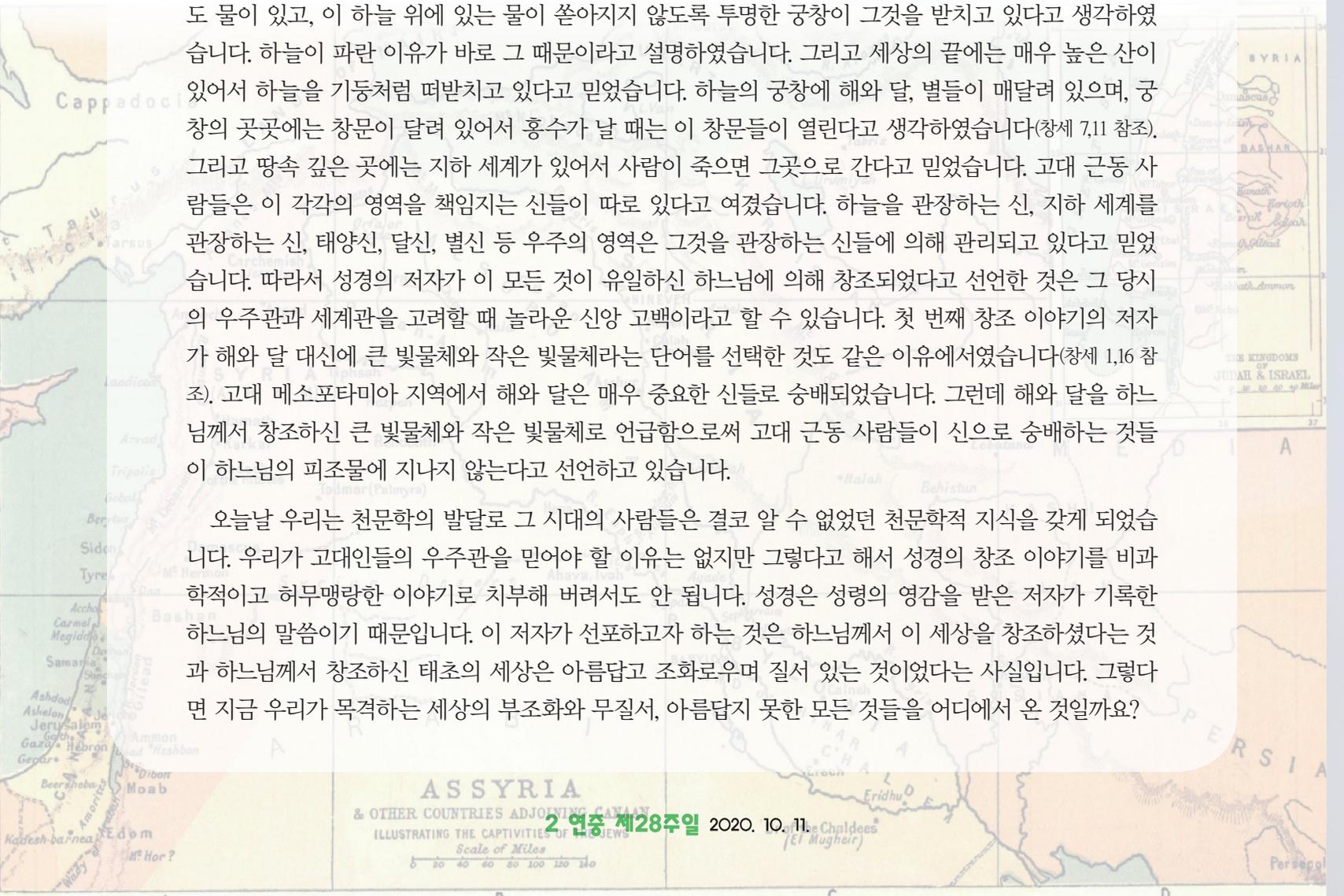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아직 첫 번째 순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남녀가 다스리는 태초의 세상에는 온갖 생물들이 제 종류대로 자랍니다.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원죄도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읽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태초의 세상과 같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저자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순례지를 떠나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역사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 역사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이름이나 사건, 연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정말로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는가 아니라 왜 성경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창조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우주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투명한 궁창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매우 높은 산이 있어서 하늘을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별들이 매달려 있으며, 궁창의 곳곳에는 창문이 달려 있어서 홍수가 날 때는 이 창문들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창세 7,11 참조).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는 지하 세계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각각의 영역을 책임지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신,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 태양신, 달신, 별신 등 우주의 영역은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이 모든 것이 유일하신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그 당시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고려할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저자가 해와 달 대신에 큰 빛물체와 작은 빛물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창세 1,16 참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해와 달은 매우 중요한 신들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큰 빛물체와 작은 빛물체로 언급함으로써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하느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문학의 발달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천문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질서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부조화와 무질서,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영적 성장의 길2- 성당에 왜 다니나요?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성당에 왜 다니시나요?”라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으면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혹은 “어머니나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라고 답하기도 하고, 교리를 조금 아는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모습도 교우들에 따라 다양합니다. 미사만 참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성당의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는 기도와 선행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집이나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열심히 이들도 성당에 다니면서 기대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사제나 교우들에게 실망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당에 왜 다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내적 위안을 얻기 위해 혹은 타인이나 의무감 때문에 성당에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성당에 다니고 싶다면 이 글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주된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 찬양과 흠숭을 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는 것이 그분 나라 백성의 소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성당에 간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하느님을 넘어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성당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느님 중심’의 신앙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사랑이신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Sharing love)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Becoming love)입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공적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를 바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이 거룩한 순간은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의 순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사랑이 되는 순간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순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성당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특히 성사의 은총)을 나눠줍니다. 성당에서의 모든 다양한 활동들과 봉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는 장입니다. 성당에서의 모든 활동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랑을 넘어 다른 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은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보편적인 사랑을 하도록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가 되어 갈 때, 성당에서의 신앙생활과 그 외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당에 왜 다니나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품은 진영성당

조정자 이사벨라

지역의 선구자 역할 진영성당

진영성당은 1957년에 성모병원을 개원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질병과 가난이 득세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현실에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신앙인의 사명이라면 진영성당은 거기에 정확하게 응답했다. 그때 진영성당은 병원을 지어 결핵 환자를 돌보았고, 환자가 거의 소멸할 때까지 운영하다가 폐원했다. 1962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자와 지역민들의 자립을 견인했다.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담당하게 해 오다가 국가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손을 뗐다. 각 성당의 유치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만큼 교육의 질이나 시스템이 훌륭했다. 국가가 유아교육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자 교회는 과감히 거기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진영성당이 바로 그 표본이다. 병원과 해성학원과 복지관과 협동조합이 그 사례이다. 망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교회 정신에 부합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서 실천하는, 지역사회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나무그늘 아래서

12대~14대 사목회장을 역임했다는 김중곤 비오(87세)와 부인 윤술련 바르바라(84세), 이삼순 율리아(89세) 어르신들과 함께 김승원 마오로(63세) 현 사목회장이 성당 마당 나무그늘 아래 탁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회장도 1958년 유아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진영성당 신자로 살아왔으니 만만찮은 진영성당 지킴이다. 하지만 산 역사를 모두 꿰고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는 미칠 수 없다고 말한다. 1935년에 본당이 설립되었지만, 변변한 성전을 갖추지 못하였다. 1955년 12월에 성전 기공식을 하여 1956년 5월 1일 봉헌식을 올리기가까지 신자들의 눈물 어린 노력은 짧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85년의 역사에서 그들이 함께 채웠던 시간은 땀과 감동이었다. 큰 행사 때마다 돼지를 몇 마리씩 잡아 삶고, 국밥을 수없이 끓여 내었던 젊은 시간을 회상하며 그들은 다시 행복해한다. 김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친부모를 대하듯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며 진영성당을 지켜온 기도와 봉사에 신자들을 대신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 사람들 말고도 떠나지 않고 진영성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서로 이름을 들먹인다. 신자들이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다시 전성기의 활기를 되찾아

진영은 구시가지의 본거지로 유동인구가 많았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시장이 활기를 띠다가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가로망의 변화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젊은 연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사방으로 길이 열리면서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대의 모습을 스스로 담아낸다. 주일학교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도시의 여느 성당보다 많다. 청년미사도 따로 올릴 만큼 활발하다. 주일미사가 3대이지만, 신자 수에 비해 성전이 크지 않아 교중미사는 강당으로 나누어 스크린을 통해 참례해야 하기도 한다. 올해 1월에는 본당 출신 서시문 시문 신부 서품식이 있었다. 많은 신자들이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품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나게 했다. 이번 견진성사는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9월 9일 수요일 저녁에 치렀는데,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고 74명이나 되는 많은 신자가 성사를 받았다. 견진성사 받을 때면 보통 2,30명이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신도사로 인한 진영성당의 밝은 미래가 내다보이는 상황이다.



견진성사(2020년 9월 9일)

순교자 신석복을 모셨던 진영성당

1935년 대구교구로 출발한 진영본당은 1963년 부산교구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교구 소속으로 되었다가, 1973년 교구 관할 재조정으로 마산교구로 편입되었다. 1985년에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과 본당 50년사를 발간하여 역사를 기록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영성당의 중심에는 순교자 정신이 흐르고 있다. 명례 출신의 신석복 마르코는 1866년 3월 31일 순교하였다. 순교 후 가족은 시신을 명례로 옮겨오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강 건너 도둑골이란 곳에 안장했다. 진영성당에서는 110년 동안 쓸쓸히 묻혀있던 순교자 묘지를 찾아내어, 1975년 진영천주교공원묘지에 안장했다. 신자들은 묘소를 관리하고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신심을 키웠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으로 거행된 서울 광화문 124위 시복식에서 신석복 마르코는 복자품에 올랐다. 명례성지가 조성되어 2018년 12월 8일 복자 신석복 마르코의 유해는 이장하여 명례성지 순교자 탑 아래 부활 경당에 모셨지만, 진영성당 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그들의 순교자로 남아있다.



교구장 동정

추계주교회의

일시: 10월 12일(월)~16일(금)
장소: CBCK

교리교사의 날 파견미사

일시: 10월 18일(주일)
장소: 월영성당

견진성사

일시: 10월 14일(수)
장소: 사람동성당
집전: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본당

2020년 근속 교리교사 미사 및 시상식

일시: 10월 18일(주일) 14:30~16:30
장소: 월영성당(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8)
대상: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근속 교리교사
내용: 미사 봉헌-주교님 집전
근속 시상식
준비물: 미사 준비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제454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10월 18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신학생 부모피정

일시: 11월 1일(주일) 09:3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비: 1인 2만 원, 2인 3만 원
계좌: KEB하나은행 160-890023-05404
(재)마산교구
준비물: 주일미사 준비
신청: 10월 21일(수)까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다락방) 월모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일시: 10월 19일(월) 09:3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식사 및 차량 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 전국 대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교구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타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1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내용: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수)~12월 14일(월)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i@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p>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p>	<p>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차용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p>	<p>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 2중 세트 10개 1박스 /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p>	



산청분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 사목회장: 김종호(베네딕도)
- 사목부회장(남성): 이충환(스테파노)
- 사목부회장(남성): 이상용(보니파시오)
- 사목부회장(여성): 이순단(루시아)
- 총무: 한정섭(아론)
- 가정분과장: 이병균(프란치스코)
- 교육분과장: 정선미(율리아나)
- 구역분과장: 문영희(글라리아)
- 복음화분과장: 박혜성(올리엠타)
- 사회복지분과장: 최명선(살비아)
- 시설분과장: 오평준(벤첸시오)
- 여성분과장: 최성영(마르타)
- 재정분과장: 문병국(대건 안드레아)
- 전례분과장: 김봉란(수산나)
- 청소년분과장: 김경수(안드레아)
- 홍보분과장: 우정숙(마더 데레사)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강론: 서정범(요한) 신부(장평분당 주임)
참석범위: 교구청 사제단, 유가족
※ 코로나19 관계로 참석범위를 제한합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
교사 정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국어(1)·영어(2)·가정(1)·
지구과학(1)·일반사회(1)
근무예정학교: 성지여중·고, 해성중·고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19일(월)~23일(금)
09:00~18:00, 5일간
문의: 055·240·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0월 18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비대면)제9회 교구 성경잔치

교구 성경부에서는 제9회 성경잔치를 '코로나19 시대 나의 말씀 체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코로나19 시대 나의 말씀 체험 이야기' 공모전

- 일시: 10월 16일(금)까지 접수
- 작품종류: 그림, 글(시, 체험 수기 등), 동영상, 기타(개인이 표현할수 있는 모든 것)
- 제출처: masanbible@daum.net 또는 교구 성경부(우편으로 가능)
-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

2. <은총성경쓰기-역사서2>을 완필하신 모든 분께 주교님 역사서2 완필증 수여

3. 구·신약 성경 완필 축복장 수여

- 내용: 구·신약 완필자 중 주교님 축복장을 받기 원하는 분
- 대상: 2019년 8월 1일~2020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필사증 발급받은 분
- ※시상: 완필장·축복장 수여 및 공모전에 대한 시상은 각 본당별로 성서주간(11월 22일) 주일에 시상식 진행
-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2020년 제9회 마산교구 [비대면] 성경잔치

1. '코로나19시대 나의 말씀 체험 이야기' 공모전

▶ 공모부문: 글(시, 동화, 수기), 이미지(그림, 일러스트, 웹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양식

▶ 접수마감: 2020. 10. 16(금)

▶ 접수방법: ① masanbible@daum.net 메일 발송
② 교구 성경부로 우편 발송

▶ 발표 및 게시: 10. 30(금) 교구 홈페이지 게시

대상	구분	시상
완필장 (구·신약)	완수상(1명)	교구장 상영 및 영등
	우수상(2명)	완수상(2명)
동양인부	완수상(1명)	교구장 상영 및 영등
	우수상(2명)	완수상(2명)
기타 지역 세무인들	완수상(1명)	교구장 상영 및 영등
	우수상(2명)	완수상(2명)

2. <은총성경쓰기-역사서2> 교구장 완필증 수여
각 본당에서 역사서2 영인 제출하신 분을

3. 구·신약 성경 완필 축복장 수여
각 본당에서 대상지 영인 작성 신청하신 분을

문의: 교구 사목국 성경부 055.249.7025-6

천주교마산교구
CATHOLIC DIOCESE OF MASAN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는 묵주기도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코로나 시대 :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살림살이와 건강을 걱정하며 세상의 뉴스에 관심을 가집니다. 불안을 잊고 위안을 찾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소중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치유자이신 구세주께 되돌아가는 시간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이 곧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이겠지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바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가정 기도입니다.(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이하 묵주기도> 41, 42 참조)

묵주기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봅니다.”(묵주기도 1)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께 열려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낱줄과 씨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모송을 암송할 때마다(낱줄) 상기하는 예수님은, 각 단의 신비를 통해(씨줄) 묵상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묵주기도의 직물을 짜면서, 예수님과 함께 슬픔 중에 기쁨을(환희의 신비), 어둠 속에서 빛을(빛의 신비), 고통의 구원적 의미를(고통의 신비), 성령의 힘찬 활동 가운데 영광을(영광의 신비) 누립니다.

묵주기도 방법 :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 기도입니다.”(묵주기도 12)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묵주기도 12, 마리아 공경 47) 기도문만을 공허하게 되풀이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관상적 차원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고요한 운율과 느긋한 속도로”(묵주기도 12)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바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조급함 없이 느긋하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이처럼 바칩니다.

매일의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는, 풍요로운 묵주기도 성월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